

한전공대 교수 연봉 최고 4억 원 받는다

교원 수급 계획 윤곽 교수·직원 각 100명 외국교수 비중 15%

오는 2022년 개교 예정인 가칭 한전공대의 교원 수급계획과 처우·지원 체계 윤곽이 드러났다. 18일 한국전력이 공개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3월 개교 때 1차로 교수 50명을 확보한 뒤, 2023년 60명, 2024년 75명, 2025년 100명 등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급별 인원은 교수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정교수는 4분의 1인 25명(내국인 19명·외국인 6명)으로 하고 부교수는 35명(29명·6명)이며, 그 밖에 조교수 40명(37명·3명) 등이다. 신설된 한전공대의 외국인 교수 비중은 15%로, 국내 과학기술 특성과 5개 대학의 평균 외국인 교수 비중(자연과학 10%·공학 6%)보다 훨씬 높다. 교수들의 연봉 역시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보다 1.5배 높게 책정했다. 초기에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석학급 교수의 경우 평균 연봉 4억원을

지급하며, 정교수 2억원, 부교수 1억4천만원, 조교수 1억2천만원 등이다. 업적·성과에 따라 직급 내 연봉 수준을 차별화하고 석학급 교수는 '탄력적 대우'를 해주기로 한 만큼 최고 연봉은 4억원을 넘을 수 있다. 석학급은 세계수준 연구업적을 냈거나 학장 이상의 대학리더십 경험이 있는 교수다. 교수 업적평가 기본방향은 △평가 운영 자율성 강화 △질적 우수성 업적 평가 △평가 방법 합리적 제고 △업적 평가 공정한 활용 등이다. 초대 총장은 기술·공학 분야 석학에 행

정력을 겸비한 인물을 임명할 방침이다. 총장 임기는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약 60명의 후보자를 발굴한 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 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 규모는 교수 100명 외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직원 100명이다.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절반가량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캠퍼스 면적은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 40만㎡다. /이순로 기자 srlee@

맑고 청명한 가을하늘 기대 기상청 "아침엔 쌀쌀... 겉옷 챙겨야"

19일 전국이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0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보됐다. 광주가 한낮에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를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19일 아침에는 기온이 전날보다 2~5도, 평년보다 1~3도 낮아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김태엽 기자 esaca@

유치원 에듀파인 상설교육장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 1회 상설교육장을 운영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담당자를 위한 지원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9월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총 68개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1단계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활용에 위해 어려움이 없도록 상설교육장을 찾는 사립유치원 사용자와 에듀파인 멘토단을 1:1 매칭해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박중신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이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총력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 식재료 사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급식 농식품의 안전관리,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력을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합동 검수·점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비롯해, NON-GMO 제품 생산업체 점검 등에 합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원산지 식별요령 안내, 농식품 안전관리 교육 지원에도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두 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물론 안정적 공급망 확충으로 학생, 학부모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합동관리체계가 구축돼 전남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무등산 등반 땀 친환경 도시락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탐방객들 대상 배달서비스 산행 전날 16시까지 주문... 2가지 메뉴 각 8천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오는 21일부터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이자 시범운영 첫날인 21일에는 무등산 장불재에서 탐방객 20명(선착순)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다.



무등보리굴비주먹밥 세트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탐방로 입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줘 탐방객 불편 해소, 일회용품 줄이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했으며, 광주 지역 중심탐방지원센터와 원호분소, 화순지역 수만리탐방지원센터 등 3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메뉴는 남도의 한정식을 느껴볼 수 있는 무등정식(잡곡밥, 보리굴비고추장, 제주육류, 여러 말반찬과 제철 채소·과일)과 광주 대표 음식인 떡갈비와 보리굴비를 넣어 만든 무등보리굴비주먹밥(보리굴비주먹밥, 떡갈비, 말반찬 제철 채소·과일) 등 2가지로 구성됐다. 주문은 카카오톡 '무등산 내 도시락'을 부탁해

계정과 친구 메시지를 하고 산행 하루 전 오후 4시까지 메뉴를 고르면 된다. 요금은 개당 8천원이며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해야 주문이 이뤄진다. 주문한 도시락을 받는 곳과 반납하는 곳은 같은 장소여야 하며, 서비스 시간은 아침 9시부터(도시락 인수) 오후 5시까지(도시락 반납)다. 최소 4개 이상, 최대 100개까지 주문할 수 있다. 예약 문의는 도시락 제공업체인 화순수립정(061-374-6560)으로 하면 된다. 최대성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탐방시설과장은 "이달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시범 운영과 품평회 의견을 수렴하여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탐방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esaca@

범인에 피습당하는 경찰 급증 진압장비 사용은 오히려 감소

경찰관이 임무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을 받아 부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범인 진압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천198명이었고, 이 가운데 46명은 순직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천858명에서 2017년 1천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다시 1천736명으로 15.8% 증가했다. 특히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

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으로 15.8% 늘었다. 반면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1천 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회 사용됐지만, 2017년 379회, 2018년 338회로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회만 사용됐다. 정인화 의원은 "범인피습으로 부상을 입는 경찰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장비 사용에 따른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9회 곡성심청축제 THE 19TH GOKSEONG SIMCHEONG FESTIVAL

동가인도 나와요~

오마이갓 심청도시락축제

2019. 10.3. (목) ~ 10. 6. (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황후 심청이 연회에 초대합니다.